

# “투표로 도민의 힘 보여줘야”

김윤덕 의원, “尹·安 야합에 맞서 투표장 찾아 달라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대변환 이를 것”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 갑) 국회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사전 투표를 하며 “유석열의 정치공화국, 정치 아합을 통한 국민 기만행위 저지를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투표를 통해 도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겸활공화국화 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소중하다”며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윤석열과 인철수의 정치 아합을 막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부터 현재 미래까지 3종 소외를 당하는 전북의 이들을 보듬고, 지방분권과 전북발전의 청사진을 구상해 왔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며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전북 발전 공약을 시작으로 14개 시·군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전북발전 공약을 통해 전북의 대변환을 이를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뜻이다”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안하무인 윤석열과 국민을 기민한 안철수의 정치 아합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에 맞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겸활공화국으로 가느냐,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대변환을 이를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뜻이다”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 “신속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 대통령, 강원·경북 산불피해 현장 방문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위대한 국민의 힘과 도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동문 도의원 출마예정자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소년 노동자로 일하면서 공부한 이재명은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서민의 삶을 비꾸고 우리와 함께할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전북발전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국가와 전북발전 위한 열망 표로서 보여달라”

김윤덕 의원, 전주 갑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1만1403인 이재명 대선 후보 릴레이 지지 호소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 갑) 국회 의원은 5일과 6일 전주갑 시도의원 출마예정자와 함께하는 1만1403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겸활공화국, 지방소멸화 저지를 위한 도민의 한 표가 절실히”하고 호소했다.

지난 5일 오전 전주 갑 이동문 도의원 출마예정자는 전주시 중화산동 한빛언과 사거리에서 전주 시민 2000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을 가졌다.

이어 6일에는 김윤덕 의원 사무실에서 최주만 출마예정자와 함께하는 전주시민 177인 이재명 지지선언, 김정명 출마예정자와 함께하는 전주시민 2022인 이재명 지지선언을 가졌다.

김윤덕 의원은 “안하무인 윤석열과 국민기반 안철수의 비열한 정치 아합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전주 시민과 도민, 국민이 대한민

시민 3000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을 이어갔다.

또한, 장병익 출마예정자는 전주시 중화산동 한빛언과 사거리에서 전주 시민 2000인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을 가졌다.

이어 6일에는 김윤덕 의원 사무실에서 최주만 출마예정자와 함께하는 전주시민 177인 이재명 지지선언, 김정명 출마예정자와 함께하는 전주시민 2022인 이재명 지지선언을 가졌다.

김윤덕 의원은 “안하무인 윤석열과 국민기반 안철수의 비열한 정치 아합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전주 시민과 도민, 국민이 대한민

국과 전북 발전의 열망을 표로써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 갑 시도의원이 중심이 돼 한 표라도 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내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원수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위대한 국민의 힘과 도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동문 도의원 출마예정자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소년 노동자로 일하면서 공부한 이재명은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서민의 삶을 비꾸고 우리와 함께할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전북발전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나라”

도내 한부모 가정 300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한부모 가정 300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이재명 후보 지원 선언식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대표해 지지 선언문을 낭독한 박준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 공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한부모 가정의 특성에 맞춘 유연성 있는 근무환경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 가정의 특성에 맞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박준필 위원장은 “현 지원 기준은 완전 영세민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 기준 설정 시 자동차와 같은 자산은 제외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자스런 경제적 독립 시 주거 문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을 구하기 전까지 아이와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이 없어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들은 “돌봄이 있는 나라, 보육의 융통성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한부모 가족증명서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지원율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의 63번 째 ‘소화행’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조지훈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 시민들의 힘”

임정엽 “9일 본투표에도 적극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승리를 위해 ‘삼보알짜’를 하고 있는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대해 시민들의 힘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전투표는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10.87%p 높은 수준이다. 전북은 48.63%로 17개 시·도 중 전남(51.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주는 45.47%를 기록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긍정적인 신호 탄으로 해석, 이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명분 없는 자리 나눠먹기식 단일화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김윤상 기자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재단장은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 열기를 높게 평가하고 오는 9일 본 투표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임정엽 미래경제재단장은 지난 5일 긴 급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은 민생과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택할지, 그 반대의 길을 택할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임도적인 지원율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정엽 단장은 “내선 민관에 이뤄진 이원의 밀실이란 무능한 후보와 배신한 후보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하고, “나를 위해, 전북과 전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을 반드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단장은 선거 역사상 기록적인 사전투표 참여율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후보 단일화가 심각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9일 선거 당일까지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어촌소멸 위기 극복 수산업 경쟁력 강화 ‘맞손’

국힘 정운천 의원-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대 협약 맺고 노력키로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 농어업 상생발전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해상통역개발, CPTP 가입 등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여왔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급격한 기후변화,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의 급감, 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수산업과 어촌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여기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수산업과 어촌은 당장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수산업·어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수산업과 어촌에 더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

는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살고 싶은 어촌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연대 협약식에는 정운천 위원장(국민의힘 선대본부 농어업 상생발전위원회),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성민 기획총괄본부장, 최대윤 해양수산총괄본부장, 장황호 해양정책본부장, 김원택 한수연 고창군연합회장, 주영대 사무총장, 하우식 한수연 수산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